

중정예하 뜻
받들겠습니다
종교평화 선언 '연기'

조계종 자성과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가 법전 중정예하의 당부로 연기된 종교평화선언 최종안 발표 관련 후속계획을 설명했다. 결사추진본부는 “지난 11월 28일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3시간 동안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며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12월 중 중정예하를 직접 찾아뵙고 구체적인 말씀을 청해 들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대중의 공의를 얻기 위해 공청회, 집중토론회 등으로 널리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특히 불교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비판적 의견을 가진 분들과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안의 발표 시기는 내년 상반기라고 전했다.

11월29일 발표될 예정이었던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은 좀 더 의견을 구하라는 법전 중정예하의 당부에 따라 발표가 연기된 바 있다. 장영섭 기자

초심호계원장
세영스님 선출

조계종 초심호계원장에 여주신특사 주지 세영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초심호계원은 지난 11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88차 심판부 회의에 앞서 초심호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초심호계위원인 세영스님을 초심호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9월 제18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를 통해 초심호계위원으로 선출된 세영스님은 오는 2015년 10월11일까지 초심호계원장 소임을 맡게 됐다.

정무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세영스님은 1976년 정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제11, 12,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여주 신특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삼화불교, 사암명칭 도용했다가...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과 삼보륜 표장을 도용해 물의를 일으켜 교계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던 ‘조계종 삼화불교’가 다 종단 사찰을 자신의 종단 사찰로 허위 게재했다는 본지 보도(도솔암 대자암 삼화불교 사찰로 둔갑-2771호 2면) 이후 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했다.

조계종 삼화불교(총무원장 해인스님)는 홈페이지 내 ‘전국사찰안내’ 코너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고창 선운사 도솔암과 공주갑사 대자암, 금산 태고사를 비롯해 선학원 사찰인 춘천 총원사, 태고종 사찰인 강릉 룡유사 등을 소속 사찰로 허위로 소개했다.

지난 11월28일 확인 결과, 조계종 삼화불교는 불교신문의 기사에서 지적된 다 종단 소속 사찰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삼화불교는 지난해에도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삼화불교 소속 사찰로 소개했다가 동화사의 항의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바가 있다. 이는 신흥종단이 자신의 종단 세(勢)를 과시하기 위해 다 종단의 천년고갑사까지 소속 사찰이라고 허위로 게재하는 불법(不法)적인 무리수까지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사나 조계종 삼화불교 기획실장은 “태고사는 홈페이지에 잘못 게재됐으며 도솔암과 대자암은 거주했던 스님이 삼화불교에 입종하는 과정에서 잘못 게재돼 곧바로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총원사와 룡유사는 아직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사찰 스님은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솔암 감원 종고스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구본사인 선운사에 정식 공문을 통해 대응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사과 전하나 사과 글조차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사진 가운데)은 지난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류종수 UN재단 상임고문에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지원사업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아름다운동행, UN재단에 5000만원 전달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사업 동참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UN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지원사업에 동참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류종수 UN재단 상임고문에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지원사업기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UN재단은 CNN 창립자 테드 터너 회장이 유엔의 활동을 돕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10억 달러를 기부해 만든 자선단체로서 현재 40여 개의 UN 산하기구와 100여 개 국가와 협력중이다.

특히 UN재단은 해마다 말라리아로 인해 약100만명이 사망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지원하는 ‘렛츠고(Let’s Go)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말라리아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국민,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금을 전달했다. 류종수 UN재단 상임고문은 “모기장 1개당 4~5명이 함께 사용하는 만큼 이번 기금 전달로 UN난민촌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2~3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배석한 권영세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불교계가 앞장서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인들을 돕는 일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탁 기자

社告

‘2012 신춘문예 공모

공모기간 : 2555(2011)년 11월 14일(월)~12월 14일(수)까지

공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 단편소설 부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시·시조 부문(각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동화 부문(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평론 부문(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상금 : - 단편소설 450만원
- 동화/평론 각 350만원
-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록이한 경우 기적 선정

당선작발표 : 2556(2012)년 1월1일 신년특집호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3번지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문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사

템플스테이 홍보 책자 비치 외환은행 ‘감성마케팅’ 나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국제화 발돋움에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외환은행은 지난 11월28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 제1회의실에서 ‘외국인 고객 업무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화사업단장 지현스님과 신현승 외환은행 외국고객영업본부장이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조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외환은행은 전국 22개 외국인 전략점포에 템플스테이 관련 책자를 비치하게 되며, 점포에 외국인 방문객이 많을 경우 소개하고 홍보하게 된다. 문화사업단은 외환은행이 선정한 외국인 VIP 고객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게 하는 팸투어를 제공하며, 은행이 이벤트를 행사하면 템플스테이 상품을 경품으로 내놓게 된다. 2년간 유효한 이번 협약은 이외에도 양측이 협의해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모두에게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단은 다양한 국가와 직종을 가진 유력한 외국인에게 홍보해 템플스테이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창구를 개설하는 기회가 되며, 외환은행은 한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제공을 통한 ‘감성 마케팅’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장 지현스님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업무제휴가 아닌,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또 다른 창구로 여기며 업무협약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나눔의 집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이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나눔의집 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11월2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날 인권위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위한 수요시위 참석을 비롯해 국내 유일의 피해자 시설과 역사관 등을 운영해 할머니들을 명예회복과 역

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노력한 공로로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설립해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와 홍보 등 여성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한 것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을 받은 단체(사람)는 모두 14곳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정기 분한신고 미필자 승적 회복신청 하세요

12일부터 접수

조계종 총무원은 “2010년 정기승려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 말소자를 대상으로 한 회복 신고를 오는 12월12일부터 접수한다”고 지난 11월28일 공고했다.

지난 9월 제187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승려법’과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 시행되는 이번 승적말소 회복신고는 2010년 정기승려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가운데 호적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2월부터 재적 교구본사나 직할 교구 사무처로 신청하면 된다. 회복신청은 소정양식의 분한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승려증, 자필 유언장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이나 시민권 취득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사찰거주 확인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해 승적말소 회복 신고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에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적 회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2010년 정기분한신고 시 1만4000여명의 분한신고대상 스님 가운데 1만1553명이 분한신고서를 접수해 분한심사가 진행됐으며 2500여 명은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상태다. 박인탁 기자

구독신청 (02)730-4488

한장의 불교신문
한사람의 포교사

Tel: 02)2000-2636 Fax: 02)2000-2609 www.mkbook.co.kr

매경출판

세계화 시대, 국내 최초로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간화선 영문지침서!

Open the Mind, See the Light

간화선 영문 영어집
Open the Mind, See the Light

진제 대선사 지음
현각 스님 옮김, 로버트 버스웰 감수

영어로 읽는
‘간화선,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
한국 불교의 신지식, 진제 대선사가 현대인들에게 수평평화를 알려준다
(만행)의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불교학의 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한 영문 참선법문집
매일경제신문사

이제, 세계의 지성인들이 참선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동양정신문화의 골수인 간화선, 뉴욕의 상징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말하다.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법어 전문 수록.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손으로 現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대선사 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268면 | 값 20,000원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펼쳐진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DVD 출시(btn)

“오늘 밤 선사님과 대화는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과 국경을 넘어 다리를 잇는 인류 공동의 휴머니티를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번 역사적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게 하신 진제 선사님의 방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BTN 특집
진제 대선사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2011. 9. 15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
· DVD 2개 세트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해운정사(051-746-2256)

진제 대선사 지음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2011. 9. 15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

간화선, 인류에게 참된 평화로
진제 대선사 지음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2011. 9. 15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